금주의 법구-〈별역잡아함경〉
애욕보다 큰 것이 없고
분노보다 깊은 것이 없고
교만보다 높은 것이 없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93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6년 음력 6월 1일) 2022년 6월 29일 수요일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는 6월 19일 세계 비구니계 지도자 및 석학들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불교 수행에 대한 가르침을 내렸다.

성파 종정예하 "마음으로 세상보라"

세계 비구니 지도자 · 불교석학, 성파 종정예하 친견

19일 통도사 종정예경실서 친견
쏘모 스님 "불심 보여달라" 요청
성파 종정예하 "자기가 봐야지"

통도사 · 불국사 · 석굴암 등 참배
한마음선원 부산 울산 진주 순례
"한국불교 전통 느끼는 계기" 소감

양산 통도사=노덕현 기자

조계종 종정 예하 성파 대종사께서 세계 비구니계 지도자들과 석학들의 만남에서 불교 수행에는 다름이 없다는 가르침을 내렸다.

세계 비구니계 지도자들과 석학들은 6월 19일 양산 통도사 종정예경실에서 성파 종정 예하를 친견했다.

이날 친견 자리에는 前 샤카디카인터내셔널 회장 렉쉐 쏘모 스님(미국 샌디에고대 종교학과 교수)을 비롯해 툽텐 죄된 스님(미국 쉬라바스티 애비 주지), 하주 스님(미국 앤아버 선련사 주지), 대만 법고산 대학 창쉔 스님, 베트남 불교대학 불교영어학과장 류팝 스님, 모니카 베테 교토 중세일본학연구소장, 카와나미 히로코 영국 랭커스터대 교수, 모니카 슈림프 독일 튀빙겐 대학 교수 등 세계 비구니 스님과 여성 불교학자 20여 명이 참여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 법계위원장 법산 스님,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 울산지원장 혜안 스님 등이 이들을 안내했다.

세계 비구니 지도자들과 석학들은 한마음선원 대행선연구원이 6월 17~18일 '세계의 비구니 승가: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개최한 묘공당 대행선사 열반 10주기 국제학술대회 참석차 방한했다.

이날 성파 종정 예하는 세계 불교학자들에게 "교와 선은 같다. 다르다고 하면 다르지만, 내용은 같다"라고 가르침을 내렸다.

종정 예하께서는 주먹과 손바닥, 손가락을 차례로 들어 보이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름은 다르지만, 손이라는 본질은 매한가지"라고 설하며 '선교일치'의 가르침을 전했다.

이어 성파 종정 예하는 "세상을 보는 관점이 중요한데 육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심(心)으로 한눈에 바라보아야 한다. 육안으로 보는 것에 시비할 게 없다"라고 했다.

이날 친견 자리에서는 선문답도 오갔다. 렉쉐 쏘모 스님은 종정예경실에 걸린 대만 성운대사의 '불심(佛心)' 휘호 족자를 보고 성파 종정예하께 "스님, 불심을 좀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라고 여쭙자 종정예하께서는 "불심은 얼마든지 볼 수 있지. 보는 건 자기가 봐야지"라고 화두를 건네자 좌중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성파 종정 예하는 화두에 대해 다시 "내가 물을 한잔을 마시는데, 누가 '물 온도가 어떻습니까' 물으면 이에 답을 할 수가 없어요. '네가 직접 마셔봐라' 라고 해야지"라고 친절하게 풀어 설명했다. 친견 자리에서는 일과 예술 속에 수행과 실천을 담은 종정 예하에 대한 소개와 함께 이에 대한 학자들의 질문도 이어졌다.

'선수행과 예술이 어떤 접점이 있는가'는 좌중의 질문에 대해 종정 예하께서는 '화의간산무악석(畵意看山無惡石) 선심도수진생어(禪心渡水盡生魚)'라는 일구(一句)를 인용하며 설명했다. 종정 예하는 "화가의 눈으로 산을 보면 나쁜 돌은 없다. 그리하듯 선심(禪心)이 있는 사람, 마음 닦는 사람, 살생하지 않는 사람이 물을 건너면 전부 고기가 다 살았다"고 가르침을 내렸다.

마지막으로 종정 예하는 참가자들에게 이들에게 직접 천연염색한 머플러를 선물했다. 성파 종정예하 친견을 마친 세계 비구니 지도자와 석학들은 종정예하께서 주석하며 제작한 16만 도자대장경이 보관된 장경각을 참배하고, 반구대 암각화를 자개옻칠로 새긴 수중작품, 생활 수행 정신이 담긴 된장 장독대 등을 참배했다.

베트남 류팝 스님은 "삶과 수행이 다름이 아니라는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고 성파 종정예하와의 대화를 통해 한국불교의 선수행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성파 종정예하 친견 후 통도사 및 불국사 석굴암 참배와 함께 조계종립 동국대 WISE캠퍼스 견학 등을 진행했다. 또한, 대행 선사의 원력이 서려있는 한마음선원 부산 · 울산 · 진주 지원 등을 순례하며 비구니 승가의 나아갈 길을 모색했다.

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 창립
불교 여성포교 새 장 열었다

조계종 여성불자들의 전국구 결집체인 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가 첫발을 내딛었다. 전국여성불자회는 전국 25개 교구본 · 말사에서 활동해 온 여성 불자들의 저력을 결집하고 활동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에서 출범한 만큼, 침체된 한국불교를 견인할 대표적인 포교단체로 성장할 것이란 기대가 모인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범해)과 전국여성불자회 설립추진위원회는 6월 23일 서울 조계사에서 전국여성불자회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창립법회는 그동안 각 지역에서 활동해 온 전국 여성불자들을 결집하고 의지를 모으는 법석으로 마련돼 의미를 더했다.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 교육원장 진우 스님, 포교원장 범해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을 비롯한 조계종 주요내외빈들이 참석해 출범을 축하했다. 또 전국여성불자회 지도법사 소임을 담당할 전국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을 대표해 초격(봉선사), 덕조(은해사), 허운(관음사) 스님과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 한마음선원 주지 혜솔 스님 등 스님들, 전국여성불자회 발기인으로 참여한 여성불자들도 대거 참석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치사에서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여성도 출가해 아라한의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며 여성 출가를 여셨고 이후 부처님 교단과 한국불교에서 재가 여성의 역할 역시 참으로 경이적이었다"며 "오늘날 한국불교 역시 법회, 보시, 봉사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부분의 소임자들이 여성이기에, 우리 종단은 이러한 여성 활동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오늘 창립하는 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가 온 생명을 자애롭게 감싸는 관세음보살의 마음으로 한국불교의 대사회 활동에 앞장서 주기를, 또 여성의 권익을 향상하는 일에 서로를 조직해 앞으로 나아가고, 자비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든든한 도반이 되어 주길 바란다"며 "전국여성불자회가 명실상부한 종단 대표 여성단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전국여성불자회 당연직 총재에는 포교원장 범해 스님이 위촉됐다. 범해 스님은 "오직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가정과 사찰, 일터에서 간절한 기도로 얻은 법음을 전하고, 치열한 정진의 향기로 청정 세상을 일구어 온 전국의 여성 불자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였다"며 "김의정 초대회장을 중심으로 불교적이고 민주적인 조직을 세워, 백련 한 송이가 108연꽃을 피워 내는 조계종단의 대표 포교조직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종회의장 정문 스님도 축사에서 "전국여성불자회는 소중한 여성불자들을 보듬고 인재불사에 매진해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여성 조직으로 우뚝 서야 할 것"이라며 "다양한 활동으로 종단의 위상을 높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은 전국여성불자회 창립에 남다른 격려를 보냈다. 스님은 "오늘 창립하는 전국여성불자회는 한국 여성불교에 한 획을 긋는 대작불사로, 정통성을 계승한 명실상부한 단체를 갈망하던 우리 여성 불자들에게는 감로수 같은 존재"라며 "앞으로 우리 전국여성불자회 회원분들이 각 분야에서 마치 호법신장처럼 종단을 외호해나가실 것이라 믿는다"고 전했다.

6월 23일 조계사서 창립 법회
초대회장에 김의정 前신도회장
총재 범해·지도법사 초격 스님

이어 본각 스님은 모든 여성불자들의 화합을 재차 강조했다. 스님은 "전국여성불자회에 많은 여성 불자들께서 순수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서로 나누어질 것도, 서로 대립할 것도 없다. 함께 손잡으려고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도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전병국 제1차관이 대독한 축사에서 "현대사회에서 여성들의 사회적 위상과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으며 불교계 역시 여성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여성들의 역할과 활동을 조직화하고 보다 확대하는 전국여성불자회가 창립해 의미가 크다"고 축하를 전했다.

전국여성불자회는 포교원장 범해 스님을 당연직 총재로, 전국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을 지도법사로 운영된다. 초대회장에는 前중앙신도회장인 김의정 조계사 신도회장이, 수석부회장에는 이연화 천마관광 대표(前은해사 신도회장)가 임명됐다. 〈관련기사 3면〉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백만원력 결집불사
위례신도시
상월선원 신축불사

아홉스님의 석 달 동안의 동안거 상월선원 천막결사 정신을 계승하여 한국불교 중흥과 나라와 국민의 평안, 나아가 온 인류의 평화를 기원하기 위한 상월선원 신축불사를 추진합니다. 봉은사의 위례 신도시 상월선원 건립불사는 상월결사의 정신을 담고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의 발원으로 시작된 백만원력 결집불사와 함께 우리 불자 한명 한명의 원력을 모아 한국불교의 내일을 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상월선원 신축불사 모연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상월선원 전체 불사 모연



전체 불사 : 1인 100만원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35-099939
농 협 301-0299-2142-01
국민은행 401301-04-080435
예 금 주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문의/안내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02)3218-4811 / 4837

홈페이지 http://www.bongeunsa.org

상월선원 대웅전 불사 모연





구 분	수 량	동참금
상량보	1개	2억원
대들보	18개	1억원(개당)
기둥	18개	5천만원(개당)
도리	77개	2천만원(개당)
주춧돌	18개	5백만원(개당)
서까래	236개	1백만원(개당)
기타		십시일반

구 분	내 용	가족모연(금판)		개인모연(은판)		십시일반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불상	삼존불(석가모니불) 및 좌대	5명	3억원	200명	100만원	500명	10만원
	삼존불(약사여래불) 및 좌대	5명	2억원	200명		500명	
	삼존불(아미타불) 및 좌대	5명	2억원	200명		500명	
	관세음보살 및 좌대	5명	1억원	200명		500명	
	지장보살 및 좌대	5명	1억원	200명		500명	
구 분	내 용	가족모연		개인모연		십시일반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탱화	후불탱화 삼세불도	10명	1억원	200명	50만원	200명	10만원
	신중탱화	10명	5천만원	200명		200명	
	감로탱화	10명	5천만원	200명		200명	



봉은사 BONG EUN SA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531 (삼성동 73번지)